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03. Vol. 14, No. 1, 1-12

연구논문

취학전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연구: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Analysi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f the Preschool Children's Mother:
Focused on Rural Housewives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장영애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 of Incheon
Jang, young Ae

- I. 서 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variables through early childhood in rural areas (Iksan and Kimpo). The subject were 134 mothers who have less than 5-year old children. The statistics used for this data were frequency, percentile,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degree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mother's education, sex of the chil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mother, child rearing attitudes, mother's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etiologic model of this study were that father's parenting support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s in rural areas.

Key words: parenting stress, rural areas, father's parenting support, parenting attitude

I.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기능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고 있으나, 자녀 양육 및 사회화 기능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는 일차적인 요인이며,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접하게 되고 최초의 학습의 장소가 되는 곳으로 가정내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관계로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박해미, 1994).

일반적으로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는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 생활을 가질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기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됨이 대부분의 어머니에게 많은 양육부담을 주어 부모 역할 수행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 Boulton(1983)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 하였는데 연구 대상자의 1/3은 어머니 됨됨을 충만감, 만족감, 몰입감 등의 폭 넓은 긍정적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3는 어머니 됨됨이 긍정적, 부정적인 양가적 감정을 갖게 한다고 응답하여 부모됨의 전환이 내재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임을 보여 주었다(Toomoson & Walker, 1989; 강희정, 1988, 재인용).

이러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기로의 전환기에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지만 그 정도가 심할 때 부모에게 영향을 미침은 물론 부모의 자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 부모 전환기에 경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예비부모 혹은 부모 전환기 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어머니의 개인의 심리적 복지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간 혹은 부부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가족 생활주기 전이에 따른 가족 적응력 약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의있는 연구 주제라 생각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도 대부분 이런 맥락에서 수행되어 왔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 작업이 이루어져 왔는데(김기현, 2000; 전춘애, 박성연, 1998; Abidin, 1990; Bendell, Stone, Field, & Goldstein, 1989 등), 이러한 작업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있는 변인들이 규명되어 왔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족형태, 자녀의 성별 구성 등이며, 이외에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자아분화 수준, 남편의 양육 참여정도, 결혼 만족도 등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되는 변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아동을 포함한 가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탐색도 아울러 이루어져 왔다(신숙재, 1997; 이사라, 2000; 정현숙, 1996; Javis & Creasey, 1990, 1991; Krauss, 1993; Lavee, Sharlin, & Kats, 1996; Mash & Johnson, 1990 등).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이들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관한 관련 정보나 사회적 지지 및 서비스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 경험에 있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 되는 변인들은 밝혀 보고자 한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농촌 주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아분화수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의 주부의 특성 변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남편의 양육 참여도, 결혼 만족도 등의 지지 변인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자녀 양육과 농촌 부모들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되며 농촌지역 취학 전 아동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농촌 주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주부의 특성 변인에 따라 농촌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지지 변인에 따라 농촌 주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농촌 주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사회인구학적변인, 주부의 특성 변인, 지지변인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 연령, 가족형태, 경제력, 자녀의 성별 등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중 어머니의 연령은 전반적인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Belsky, 1984).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과 일상생활에 관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김영아, 1990; 김윤주, 1997; 남유리, 1989; 윤진, 1984; 이광수, 1988; 최태진, 1980; Brown, 1981; Lipmans, 1974; Tomas & Herdrie, 1972)와 연령과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의 정도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권경희, 1985; 김영규, 1981; 전세정, 1988; 이현주, 1999)들이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기현, 2000, 제인용).

어머니의 학력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기현(2000)은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 양육 방법에 따른 자신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 관련되므로 어머니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 수준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적절한 기대수준을 갖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한

반면(남유리, 1989; 선미정, 1994; 이지민, 199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따르는 스트레스와 역할 갈등이 더 많아진다고 본 연구(정영숙, 1980; Barnett & Baruch, 1985; White & Edwards, 1990)도 있어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김기현, 2000, 재인용).

가족 형태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1996)은 학가족 일때가 대가족 일때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현주(1999)는 가족 형태가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정의 경제력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현정(1997)은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홍강의(1998)는 가정의 빈곤은 그 자체로 문제이지만 교육저조, 사회적 고립, 자녀 양육의 문제, 부부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존재하여 부모로 하여금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자녀의 성별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 신숙재(1997)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딸보다 아들을 더 위해주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아 어머니의 경우에 더 누적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주부 개인 특성변인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갖고 있으나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정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와의 상관정도에는 비교적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199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와의 상관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반면, 전춘애 등(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기질 중 정서성은 양육행동 중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인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거부·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자아분화수준(self differentiation) 정도에 따라서도 양육 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 전춘애 등(1998)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성숙과 문화가 잘 이루어 질수록 부모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한 Belsky와 Vondra(199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 체계에 의해 생활하는데 비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 체계에 근거하고 보다 신중히 생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Walsh(1982)의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들은 다양한 대처 기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박해미(1994)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정신병력, 건강 같은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고성혜(1994)는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가 불안이나 양육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보고하여 어머니 자신의 성격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정현(1997)은 어머니가 건강할수록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다음에는 지지변인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본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남편의 양육참여정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숙재(1997)의 연구

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사이에 개입하여 스트레스 원의 주관적 승인에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 승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중상 사이에 개입하여 부적응 반응을 억제하고 적응반응을 촉진하거나 대처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때 스트레스의 승인에는 무기력감을 갖게 하거나 자존감 혹은 숙달감의 손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 지원이 이러한 심리적 구인의 회복과 관계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는 하나 Unger과 Wandersman(1998)의 연구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행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압력이라는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지원은 사회적 지원이 낮을 때 부모행동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켰지만, 사회적 관계망의 지원은 배우자의 지지가 낮을 때,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적절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원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원 중에서도 배우자의 지원은 다른 관계에서 제공되는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춘애(1994)도 취업모의 경우에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황인향(1993)의 연구에서도 전문직, 사무직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하여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Belsky(1984)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이며,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원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만족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다. 즉 조화로운 부부관계는 좋은 부모자녀 관계와 연결되는데, 부모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 할수록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민감하며 덜 강압적으로 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반면에 부부가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자녀행동에 대한 지각은 더욱 부정적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도 덜 긍정적이었으며 양육 스트레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1999)는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가 낮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전춘애(1994)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여러 변인, 주부의 개인특성에 관계되는 변인, 지지변인들은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김포와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만5세 이하의 첫 자녀를 둔 농촌 주부 143명이다. 이들은 유아원과 유치원을 통해서 표집되었는데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질문지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가족형태,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성별을 조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연령	30세 이하	54 (37.8)
	31세~35세 이하	65 (45.5)
	36세 이상	24 (16.8)
학력	고졸 이하	97 (67.8)
	전문대졸 이상	46 (32.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6 (11.2)
	100만~150만원 미만	40 (28.0)
	150만~200만원 미만	70 (49.0)
	200만원 이상	17 (11.9)
가족형태	핵가족	106(74.1)
	대가족	37 (25.9)
자녀성별	남	77 (53.8)
	여	66 (46.2)

2) 주부특성 변인에 관한 질문지

먼저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이현주(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성 정도에 대해 묻는 2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Likert 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부의 양육태도는 윤유은(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4점 Likert 식 척도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값(α)은 .7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은 박수선(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식 4점 척도로 총 7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것을 말한다. 신뢰도 α 값은 .66이 산출되었다.

3) 지지변인에 관한 질문지

결혼만족도는 정현숙(1997)의 RKMSS(Revised Kansas Material Satisfaction Scale) 4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위는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7점)'의 Likert 식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alpha=.92$ 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는 이현주(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을 참고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4)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

미취학 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Pearlin과 Scholler(1978)의 MSI(Material Stress Inventory)를 벤안하여 국내연구에 사용한 이영주(1998)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마다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모성역할에 대한 불쾌감 정도를 '거의 안그렇다(1점)'에서 '많이 그렇다(5점)'로 나누어 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 값은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구의 적절성 여부

를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만5세 이하의 첫 자녀를 둔 농촌주부 20명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2일부터 6월 6일에 실시되었는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의 문항은 수정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8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북 익산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유아원과 유치원을 통해 실시되었다. 익산과 김포에 총 2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는데 미회수된 것, 기입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143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산출을 위해 Cronbach's α 를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T-test와 ANOVA, 그리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중다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주부의 특성 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지지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학력과 자녀 성별에 따라서 농촌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의 어머니가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 수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변인	구분	M	t/F	S
연령	30세 이하	15.87		
	31세~35세 이하	16.56	1.13	
	36세 이상	17.29		
학력	고졸 이하	16.99		
	전문대졸 이상	15.21	6.44*	
월수입	100만원 미만	17.50		
	100~150만원 미만	16.80		
	150~200만원 미만	16.00	.79	
	200만원 이상	16.24		
가족형태	핵가족	16.25		
	대가족	16.92	.79	
자녀성별	남	16.93		
	여	15.24	5.92*	

*p<.05

준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나 관심의 부족 혹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의 경우가 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여아는 비교적 편안히 키울수 있으나 남아의 경우는 더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 같다. 기타 연령이나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주부 특성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주부특성 변인중 양육태도는 검사결과에 따라 3집단으로 나누었는데 40점 이하는 긍정적 양육태도 집단, 41점~48점 사이는 중간 양육태도 집단, 49점 이상은 부정적 양육태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아분화수준도 검사결과에 따라 3집단으로 나누었는데 18점 이하가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집단, 19점~24점 사이는 중간집단, 25점 이상은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부의 특성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부의 특성 변인 모두에 따라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를 나타났다. 먼저 양육태도의 경우 부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수준의 경우는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자아분화수준이 높거나 중간 집단보다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고, 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건강하지 못한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지역 어머니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변인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3. 지지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지지변인 중 남편의 양육참여도는 검사결과에 따라 3집단으로 나누었는데, 11점 이하는 양육참여도가 낮은 집단, 12점~17점은 중간 집단, 18점 이상이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혼만족도는 17점 이하가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 18점~23점은 중간 집단, 24점

<표 3> 주부 특성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변인	구분	M	t/F	S
양육태도	긍정적 양육태도	14.06	7.23***	a
	중간 양육태도	16.38		ab
	부정적 양육태도	18.20		b
자아분화수준	높은 집단	15.06	8.50***	a
	중간 집단	16.17		a
	낮은 집단	19.38		b
신체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19.57	12.15*	
	건강함	16.02		
정신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20.29	7.27**	
	건강함	16.22		

*p<.05 **p<.01 ***p<.001

<표 4> 지지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변인	구분	M	t/F	S
남편의 양육참여도	높은 집단	13.50	14.59***	a
	중간 집단	16.35		b
	낮은 집단	18.45		c
결혼 만족도	높은 집단	14.82	9.65**	a
	중간 집단	16.00		a
	낮은 집단	18.46		b

p<.01 *p<.001

이상은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다. 지지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변인 모두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먼저 남편의 양육 참여도에 따라서는 양육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가장 적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중간 집단, 낮은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 수록 주부가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결혼 만족도에 따라서는 결혼 만족도가 높

거나 중간인 집단이 결혼 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분석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표5>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자녀 양육 스트레스	
	b	β
연령	.524	.084
학력	-.732	-.112
월수입	-.114	-.036
가족형태(직계 가족=1)	1.286	.137
자녀 성별(여아=1)	.824	.213*
신체적 건강	-.993	-.198*
정신적 건강	-.421	-.186*
양육태도	-4.32	.203*
자아분화수준	1.721	.249**
남편 양육참여도	-1.634	-.286***
결혼 만족도	-.387	-.253**
intercept	21.372	
R ²	.419***	
Durbin-Watson 계수	2.021	

*p<.05 **p<.01 ***p<.001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γ 의 값이 .70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2에 가까워 자상관이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 주부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으로는 남편 양육참여도, 결혼 만족도, 자아분화수준, 자녀성별, 양육태도가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상태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여아인 경우,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남편의 양육참여도를 증진시키고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앞의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 차이 분석에서는 자녀가 남아인 경우가 더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여아인 경우가 더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 여아 한 변인만으로 분석할때는 남아인 경우 더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지만, 여아인 경우는 여러 변인이 함께 투입될 때 여러 다른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후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머지 변인인 연령이나 학력, 월수입, 가족형태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비율은 42%정도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 지역 취학전 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관련변인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부의 특성에 관련된 변인, 지지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경기도 김포와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농촌 주부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성별이 여아인 경우 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이 상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는 이지민(1996)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남아인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신숙재(1997)의 결과와는 일치되는 결과이다. 주부의 특성 변인은 모두 유의한 차를 나타냈는데 먼저 양육태도에 따라서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았고,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건강할수록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아진다는 이현정(1997)의 연구결과,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전춘애 등(1996)의 연구결과,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전춘애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지지변인에 따라서도 모두 유의한 차를 나타내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취학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정신적 성숙과 긍정적 양육태도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때 높은 수준의 결혼 만족도나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중개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농촌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편 양육참여도, 결혼 만족도, 자아분화수준, 자녀성별, 양육태도가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아버지들의 지지와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중재요인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버지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아버지들로 하여금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부모 전환기에 겪을 수 있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구가 주로 도시 지역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나, 우리나라 농촌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해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들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유형과 빈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수행과 이에 기초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경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숙(1990).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 연구 : 자폐아 어머니와 정상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연·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4권, 4호, 203~215.

박수선(1996).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아분화 수준과 결혼만족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사라(2000). 어머니의 가치관 및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동억제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8(1), 85-96.

유우영·최진아·이숙(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이영주(1998). 장애아동 어머니와 정상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민(1996).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행동문제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현주(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기록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현숙(1996). 부모역할 갈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가족학 논집, 8, 43-56.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 황인향(1993). 취업 주부의 가족자원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ndell, R.D., Stone, W., Field, T., & Goldstein, S.(1989). Children's effects on parenting stress in a low income, minority population.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8, 58-71.
- Crnic, L. A., &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 Greenberg, M. T., Ragozin, A. S., & Basham R.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Javis, P.A., & Creasey, G. L.(199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material stress,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and father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Human Development, Richmond, Virginia.
- Javis, P.A., & Creasey, G. L.(1991). Parenting stress coping and attachment in families with an 18-month-old infa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4, 383-395.
- Krauss, M. W.(1993). Child-related and parenting stress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7, 393-404.
- Lavee, Y., Sharlin, S., & Kats, R.(1996).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material quality :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s*, 17(1), 114-135.
- Mash, E. 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 Unger, D. G., & Wandersman, L. P.(1988). The relation of family and partner support to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 *Child Development*, 59, 1056-1060.
- Walsh, F.(1982). Conceptualizations of normal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Eds.), *Normal Family Processes*, NY : The Guilford Press, 3-42.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 a potential disturb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302-312.